



주요 문법 해설

정 희 정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 한국어에도 어순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한국어에도 어순이 있다. 한국어의 문장은 최소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목적어, 보어가 첨가될 수 있다.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며, 목적어나 보어가 서술어 앞에 위치한다.

(1) 가. 주어+서술어

나. 주어+목적어+서술어

다. 주어+보어+서술어

라. 주어+부사어+서술어

마.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한국어 문장은 대체적으로 위의 어순으로 쓰이나 입말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다음 경우에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

첫째 수식을 받는 말은 수식하는 말 뒤에 온다.

(2) 가. 마음이 예쁜 사람/두 사람/오빠의 책

나. 빨리 오세요/많이 먹었어요

(2가)의 ‘사람’은 ‘마음이 예쁜’, ‘두’, ‘오빠의’의 수식을 받는 말로 이들 말 뒤에 쓰이며, ‘오세요’, ‘먹었어요’는 ‘빨리’, ‘많이’의 수식을 받으며 이들 말 뒤에 쓰인다.

둘째, 보조 동사는 본동사의 뒤에 온다.

(3) 가. 문을 열어 주세요.

나. 빨리 와야 해요.

위 문장의 ‘주다’, ‘하다’는 ‘열다’와 ‘오다’의 뒤에 쓰여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셋째, 셈 단위 의존 명사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온다.



(4) 가. 책 한 권

나. 학생 열 명

다. 여섯 그루의 나무

‘권, 명, 그루’ 등은 사물의 갯수를 나타내는 셈단위 의존명사이다. 이들은 항상 ‘한, 열, 여섯’ 등의 숫자 뒤에 쓰여야 한다.

넷째, 명사가 여러 개 나올 때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 나열한다.

(5) 가. 아버지는 방 가운데에 앉아 계셨다.

나.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다. 철수는 영희를 팔을 붙잡았다.



생각해봅시다!

*한국어의 어순은 언제나 자연스러울까요?

1. “여기에 있던 빵 못 봤어?” 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내가 그 빵 먹었는데.
- ② 그 빵 내가 먹었는데.

2.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그거 동생 줘.
- ② 동생 그거 줘.

1번의 대답으로는 ① ②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빵’에 초점이 주어지면 ‘그 빵’이 앞에 쓰인 ②가 더 자연스러운 대답이 된다.

2번의 대답으로는 ①번이 자연스럽다. ②번의 경우는 ‘동생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질문에 더 적절한 대답이 된다.

이처럼 한국어의 어순은 자연스럽게 순서를 바꿀 수 있으나 순서가 바뀌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순에 맞게 쓰는 것이 좋다.

2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동사와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기본적으로 동사와 형용사의 기본형은 ‘먹다, 자다, 예쁘다, 아름답다’처럼 ‘-다’로 끝나지만 동사의 경우에 ‘먹다, 자다’ 형태는 특별한 맥락이 아니면 문장에 쓰이지 않는다.

“저 꽃 참 예쁘다.”와 같은 말에서 형용사 ‘예쁘다’는 일상적인 말에서도 쓸 수 있는데 ‘영수가 빵을 먹다’와 같은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동사의 기본형은 보통 사전 같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동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ㄴ다/-는다’,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는구나’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형용사는 ‘-다’, ‘-구나’와 결합한다.

(1) 가. 철수가 밥을 [*먹다, 먹는다]

나. 꽃이 참 [예쁘다. *예쁜다.]

(2) 가. 아이가 일찍 자는구나.

나. 꽃이 참 예쁘구나.

셋째, 명령형 종결어미나 약속형 종결어미는 주로 동사에 붙는다.

(3) 가. 여기에 앉아라.

나. 다음에는 내가 저녁 살게.

(4) 가. 철수야, 이것이 좋아라.(×)

나. 나도 좋을게.(×)



생각해봅시다!

다음 어휘의 품사는 무엇입니까?

● 밝다, 늙다, 상하다, 힘들다



‘밝다’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다. ‘이제 곧 날이 밝는다’의 ‘밝다’는 동사로 아침이 된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동사이고, ‘빛이 참 밝다’의 ‘밝다’는 ‘환하다’의 뜻으로 형용사이다.

‘늡다’는 ‘너도 늡는구나’처럼 동사이나 ‘늡었다’로 쓰여 주로 상태를 많이 나타내므로 형용사로 잘못 이해 될 수 있다. 이는 ‘상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음식이 상했다’처럼 완료된 상태를 주로 나타내므로 형용사처럼 보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음식이 빨리 상한다.’처럼 쓰이는 것을 볼 때 ‘상하다’는 동사이다.

‘힘들다’는 형용사이다. ‘힘이 들다’에서 ‘들다’는 동사이며 ‘밤을 새우니까 힘이 드는구나’처럼 활용한다. 그러나 ‘힘들다’로 쓸 때는 ‘밤을 새우니까 힘들구나’로 쓰이는 형용사이다.

3 다른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나요?

한국어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을 대명사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나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경우 그 듣는 사람을 대명사로 표현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 되기 쉽다.

(1) 가. 당신, 언제 차 바꾸셨습니까?(×)

나. 당신, 언제 차 바꿨어?

(2) 가. 자네, 언제 미국에 돌아가나?

나. 자네야말로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3) 가. 이제, 네 방 청소는 네가 해라.

나. 영수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1가)처럼 상대방을 높여서 가리켜야 할 때 ‘당신’을 쓰면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 된다. (1나)는 부부 사이나 나이가 비슷하며 어느 정도 친한 어른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이다. (2)의 ‘자네’는 나이나 지위가 비슷하며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어른 사이에서나 또는 조금 낮추어 말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쓸 수 있는 말로서,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또는 장인이 사위에게 하는 표현이다. (3)의 ‘너/네’는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는 지위나 나이가 같으며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데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3가)는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친구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이다. (3나)처럼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친한 정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너’가 쓰인다.

이처럼 상대방을 부르는 표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이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쓰이는 예가 많다.

(2) 가. 어디시라고 말씀드릴까요?/누구시라고 말씀드릴까요?

나. **회사의 김 대리입니다./**대학교에서 전화 왔다고 전해 주세요./서울에서 전화왔다고 전해 주세요.

(2가)는 전화를 건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지칭할 마땅한 어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동네, 또는 회사를 물어보는 것처럼 질문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회사나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된다. 사는 곳이나 회사이름만을 얘기해 줄 때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쓴다.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을 부를 때 대명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성이나 이름 뒤에 직함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가. 과장님, 어제 말씀 드린 서류입니다.

나. 오 과장님, 어제 말씀 드린 서류입니다.

다. 오정희 과장님, 어제 말씀 드린 서류입니다.

특pecially 사용할 직함이 없을 때에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4) 가. 김 선생님께서는 언제 오시겠습니까?

나. 이 일은 선생님께서 하시지요.

예문 (4)의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직함이 없는 사람을 정중히 대우하여 부르는 말이다.

한편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면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른다.

(5) 가. 이영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나. 이 일은 영수 씨가 하세요.

다. 이 씨, 밥 먹으러 갑시다.

특히 ‘씨’를 쓸 때는 (5가), (5나)에서처럼 성과 이름 뒤에 ‘씨’를 붙이거나 이름 뒤에 ‘씨’를 붙여야 한다. 이름 뒤에 ‘씨’를 붙일 경우에는 격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관계임을 나타낼 때가 많다. 그런데 (5다)와 같이 성 뒤에만 ‘씨’를 붙여 말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



4 부사는 문장 내 어디에 쓰나요?

부사는 크게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나뉜다. 문장부사는 문장 내 어느 위치에 써도 된다. 그러나 성분부사는 문장 내에 쓰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편이다.

- (1) 가. 불행히도 이번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나. 이번 사건은 불행히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다. 이번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문장부사인 ‘불행히도’는 문장의 앞이나 뒤, 중간에 써도 된다. 그러나 성분부사는 다음과 같이 문장 내 쓰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 (2) 가.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나. 오늘 잘 점심 먹었습니다.(×)
- (3) 가. 아이들은 김치를 잘 안 먹어요.(○)
 나. 아이들은 김치를 안 잘 먹어요.(×)
- (4) 가. 밥을 빨리 먹읍시다.
 나. 빨리 밥을 먹읍시다.
 다. 도서관에 빨리 갑시다.
 라. 빨리 도서관에 갑시다.
- (5) 가. 밥을 조금 빨리 먹읍시다.
 나. 밥을 빨리 조금 먹읍시다.

‘잘’ 같은 부사는 동사의 바로 앞에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안’, ‘못’ 등과 같은 부사와 같이 쓸 때는 ‘안’, ‘못’ 등의 앞에 쓴다.

‘빨리’와 같은 부사는 위치가 조금 자유스러워 보이거나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밥을 빨리 먹읍시다’는 밥 먹는 속도를 빨리하자는 의미이나 ‘빨리 밥을 먹읍시다’는 ‘밥 먹는 행위를 서두르자’는 의미이다. 즉 밥 먹는 행위를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자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에 빨리 갑시다’ 역시 도서관에 갈 때 속도를 높이자는 의미이고 ‘빨리 도서관에 갑시다’는 도서관에 갈 거면 서두르자는 의미이다.

‘밥을 조금 빨리 먹읍시다’는 현재의 속도보다 밥 먹는 속도를 조금만 빨리하자는 의미이나 ‘밥을 빨리 조금 먹읍시다’는 밥 먹는 속도를 빨리하면서 밥의 양을 줄이자는 의미를 나타낸다.



생각해봅시다!

● ‘안’ 과 ‘못’ 은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안’과 ‘못’은 동사나 형용사 바로 앞에 쓴다.

나는 사과가 안 좋아.

아이가 잠을 안 자. (*아이가 안 잠을 자.)

그러나 ‘생각하다’, ‘일하다’와 같은 동사와 같이 쓸 때는 ‘생각 안 하다’, ‘일 안 하다’로 써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 안 했어요.

그러나 ‘필요하다’, ‘깨끗하다’의 경우에는 ‘안 필요하다’, ‘안 깨끗하다’로 쓴다.

나는 아직 휴대전화는 안 필요해.

청소를 했는데도 방이 안 깨끗하네.

5

조사는 꼭 써야 하냐?

말로 할 때는 조사를 쓰지 않을 때가 많다.

(1) 가. 나 너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나. 너 언제 왔어? (←너는 언제 왔어?)

다. 너 뭐 먹어? (←너는 뭐를 먹어?)

라. 철수 어디 갔니? (←철수는 어디에 갔니?)



말로 할 때는 ‘나는’, ‘너를’에서 ‘은/는’, ‘을/를’ 쓰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조사 ‘이/가’, ‘을/를’을 써서 말하면 다른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2) 가. 저기 철수 온다. (←저기 철수가 온다.)

나. 밥 먹어? (←너는 밥을 먹어?)

‘저기 철수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에 비해 ‘철수가 온다’는 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철수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할 때 쓴다. 이처럼 입말에서는 조사를 쓰지 않아도 되나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조사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3) 지금부터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말 역시 격식적인 상황이므로 글로 쓸 때는 조사를 써야 한다.

(4) 가. 철수 영희 좋아한다. →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나. 철수 영희 언제 왔냐고 물었다. →철수는 영희에게 언제 왔냐고 물었다.

다. 철수 영희 뭐 먹냐고 물었다. →철수는 영희가 무엇을 먹냐고 물었다.

라. 영희 철수 어디 갔냐고 물었다. →영희는 철수가 어디 갔냐고 물었다.

(4)에서 ‘나는’, ‘너를’, ‘너는’, ‘철수는’, ‘어디에’와 같이 조사를 붙여서 쓸 수도 있으나 말을 할 때는 조사를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4)와 같이 글을 쓰는 상황에서는 조사 ‘는, 에게, 를, 에’ 등이 쓰이지 않으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색한 글이 된다.

6 ‘이/가’와 ‘은/는’은 어떻게 다른가요?

1.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이/가’는 ‘은/는’과 대치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는 ‘이/가’를 쓰고, 다시 그 화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은/는’을 쓴다.

(1) 옛날 옛날 숲 속에 곰 세 마리가 살았어요. 곰들은 아주 사이가 좋아서 언제나 같이 붙어 다녔대요.

2. 무엇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은/는’을 쓴다.

- (2) 가.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미선입니다.(○)
나. 제가 한국에서 온 김미선입니다.(×)
3. 주어를 묻는 의문문에는 ‘이/가’를 쓴다. 그 대답 또한 ‘이/가’를 쓴다.
- (3) 가. 선생님: 누가 키가 커요?(○)
학생: 철수가 커요.(○)
나. 선생님: 누구는 키가 커요?(×)
학생: 철수는 커요.(×)
4.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다시 말할 때는 ‘은/는’을 쓴다.
- (4) 미선 : 이번 여행 부산으로 가는 것은 어때요?
영희 : 부산은 너무 멀어요.(○)/부산이 너무 멀어요.(×)
5. 문장 속에 있는 문장의 주어에는 ‘이/가’를 쓴다.
- (5) 가. 철수가 귀국했다는 소식에 나는 기뻐다.(○)
나. 철수는 귀국했다는 소식에 나는 기뻐다.(×)
6. ‘무엇이 무엇이 어떻다’와 같은 문장에서 첫 번째 주어에는 주로 ‘은/는’을 쓴다.
- (6) 가. 백화점은 물건이 참 많아요.
나. 저는 사과가 좋아요.
7.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비교하여 말할 때는 주로 ‘은/는’을 쓴다.
- (7) 서울은 집값이 비싸고 부산은 집값이 좀 싸요.



생각해봅시다!

- ‘이것은 제 책상입니다’ 와 ‘이것이 제 책상입니다’ 는 각각 언제 쓰나요?



‘이것은 제 책상입니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의 대답이나 앞에 있는 책상을 가리키면서 그 책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쓴다. ‘이것이 제 책상입니다’는 ‘어느 것이 당신 책상입니까?’에 대한 답으로 좋다. 즉, 앞에 있는 물건을 보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거나 그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으로 ‘이것은’을 쓰고, 여러 책상이 있는 가운데 어느 것이 자기 물건인지를 묻는 대답에는 ‘이것이’를 쓰는 게 좋다.

‘이것이 무엇입니까?’의 대한 답으로 ‘이것은 책상입니다’에서 ‘이것은’은 말할 때 생략하기도 한다.

7 어른에게는 어떻게 말하나요?

어른에게는 보통 존대말을 쓴다. 존대말은 친한 사이인지 아닌지, 윗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 친한 사이에서는 윗사람에게 보통 해요체를 쓰고 친구나 아랫사람에게는 해체를 쓴다. 처음 보는 사람이나 예의를 갖춰야 하는 윗사람에게는 하십시오체를 쓰고 아랫사람에게는 해라체를 쓴다.

친한 사이		격식을 차려야 하는 사이	
윗사람	해요, 해요?	윗사람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합시다
친구 또는 아랫사람	해, 해?	아랫사람 또는 친구	나이가 든 친구, 남편이 부인에게 등
			나이가 많은 아랫사람, 장인이 사위에게 등
		아랫사람	한다, 하니? 해라, 하자

이외에 행위의 주체를 높여야 할 때는 ‘-으사-’를 쓴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아이에게 물어 볼 때는 ‘할머니께서 무엇을 하시니?’로 말한다. 즉, ‘무엇을 하는’ 사람이 할머니이므로 할머니를 높여서 ‘하다’에 ‘-으사-’를 쓰는데 아이에게 묻는 말이므로 ‘-니?’를 써서 ‘하시니?’로 묻는다.

그런데 친한 언니라 할지라도 언니는 윗사람이므로 ‘밥 먹니?’와 같은 표현을 언니에게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친한 사이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분보다는 얼마나 친한지가 중요하지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사이에서는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가 중요하므로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을 윗사람에게 쓰면 실례가 된다.



생각해봅시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 ①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셔?
- ②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어?
- ③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세요?
- ④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에 갔습니까?
- 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돌아오셨습니까?

①번은 아이가 할머니와 격식없이 이야기할 때는 쓸 수 있는 표현이다. ②번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할아버지를 높이는 ‘-으사-’를 쓰지 않았으므로 권할 만한 표현은 아니다. ③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동시에 높이는 표현이므로 좋은 표현이다. ④번의 ‘갔습니까?’ 할머니에게 극존칭을 하는 표현이므로 존대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할아버지를 높이지 않았으므로 ②번처럼 권할 만한 표현은 아니다. ⑤번은 할머니에게 극존칭을 쓰고 할아버지를 높였으므로 존대법상으로는 아주 좋은 표현이나 아이와 할머니와의 친근함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된다.



생각해봅시다!

‘다음 표현을 윗사람에게 쓸 수 있을까요?’

- ① 회의장에 들어가십시오.
- ② 같이 식사합시다.

‘들어가십시오, 식사합시다’는 존대법상으로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시사항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며 개인적으로 윗사람에 쓰는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다. 다시 말하면 이들 표현은 회의 석상이나 의식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시할 때 많이 쓰인다.

개인적으로 윗사람에게만 말할 때는 ‘들어가십시오’, ‘합시다’와 같은 어투는 실례가 될 때가 많다. 윗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들어가시겠습니까?’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와 같은 표현으로 쓰는 것이 좋다. 들어갈 수 있는지 같이 식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실례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다.



8 '-는 것 같다, '-는 모양이다, '-나 보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는 것 같다’는 주로 화자 자신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지식에 근거하여 추측할 때 쓰고, ‘-는 모양이다’나 ‘-나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 등에 근거하여 추측할 때 쓴다.

(1) (비가 창문을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 가. 밖에 비가 오는 것 같다.
- 나. 밖에 비가 오는 모양이다.
- 다. 밖에 비가 오나 보다.

(2) 가. 민수가 오늘 지각한 걸 보니까 어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 나. 민수가 오늘 지각한 걸 보니까 어제 술을 마신 모양이에요.
- 다. 민수가 오늘 지각한 걸 보니까 어제 술을 마셨나 봐요.

(1)과 (2)의 상황은 밖에 상황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그것에 유추하여 추측하는 의미로 ‘-는 것 같다’, ‘-는 모양이다’, ‘-나 보다’를 모두 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거나 주관적으로 추측할 때는 ‘-는 것 같다’만을 쓸 수 있다.

(3) 가. 오늘 영화를 보러 갈까요?

- 나. 주말이니까 극장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 다. 주말이니까 극장에 사람이 많을 모양이에요(×)
- 라. 주말이니까 극장에 사람이 많을 건가 봐요(×)

(3가)의 질문에 (3나)는 적절하나 (3다~라)로는 말할 수 없다. 극장에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주말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다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거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말하는 이의 생각을 나타내는 ‘제 생각에는’과 ‘-는 것 같다’만이 쓰이는 다음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다.

(4) 가. 영수 씨 어때요? 이번 일 잘 해낼 수 있겠지요?

- 나. 제 생각에는 영수씨가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낼 거예요(○)
- 다. 제 생각에는 영수씨가 성실한가 봐요. 그러니까 잘 해낼 거예요(×)
- 라. 제 생각에는 영수씨가 성실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해낼 거예요(×)

4가)에 대한 대답으로 (4나)만이 가능한데, 이 또한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추측이기 때문이다.

‘-는 것 같다’와 ‘-는 모양이다’는 과거에 추측했던 것을 현재 말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으나 ‘-나 보다’는 현재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추측하므로 (5다)와 같은 표현으로는 쓰지 못한다.

- (5) 가. 어제 영수 씨는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나. 어제 영수 씨는 술을 마신 모양이었어요.
 다. 어제 영수 씨는 술을 마셨나 봐요.

(5가~나)는 어제 영수 씨의 상태를 보고 어제 추측한 내용이고, (5다)는 현재의 영수 씨의 상태를 보고 어제 술을 마셨다고 추측한 내용이다.



생각해봅시다!

- ‘맛있는 것 같아요’ 는 언제 쓰나요?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는 것 같아요’로 쓰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말할 때 추측의 표현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자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음식의 맛에 대해 추측할 때는 ‘맛있는 것 같아요’를 쓸 수 있다. 즉 자신은 아직 맛을 보지 못했지만 주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판단했을 때는 ‘맛있는 것 같아요’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 음식의 맛에 대해 추측할 때는 ‘맛있는 것 같아요’보다는 ‘맛있을 것 같아요’로 쓴다.



9 '-을 거예요', '-겠습니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을 거예요’는 미리 예정된 사실을 말할 때 쓴다.

(1) 가.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나. 저 사람은 곧 죽을 거예요.

다. 저는 내일 부산에 갈 거예요.

라. 저는 꼭 대학에 갈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는 일기예보를 본 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저 사람은 곧 죽을 거예요’는 병이 들었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쓸 수 있는 말이다.

‘저는 내일 부산에 갈 거예요’는 이미 예정된 사실을 말할 때 쓴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말할 때도 -을 거예요’를 쓸 수 있다. ‘꼭 대학에 갈 거예요’처럼 미리 예정된 사실처럼 표현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을 거예요’는 예정된 사실을 말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말에 뭐 할지를 물어볼 때는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로 질문하게 된다.



생각해봅시다!

1. 언제 ‘제가 할 거예요’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는 언제 쓰나요?
2. ‘저 사람 죽겠어요’와 ‘저 사람 죽을 거예요’는 같이 쓸 수 있나요?

1. ‘제가 하겠습니다’는 현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쓴다.

가 : 이제 공부를 시작할까요?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나 : 제가 읽겠습니다./제가 읽을게요./*제가 읽을 거예요.

위의 상황에서 누가 읽을지 현장에서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가 읽겠습니다’로 말하는 것 좋다. 즉, 예정된 일이 아니고 지금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로 말하는 것이다. 비격식적으로 말할 때는 ‘제가 할게요’를 써도 된다.

2. ‘저 사람 죽겠어요’는 현재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현재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는 ‘저 사람 죽을 거예요’를 써야 좋은 표현이 된다.

10 ‘-았/었/였-’은 과거의 일에만 쓰나요?

‘-았’은 보통 행위가 말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전에 일어났거나 과거의 상태를 말할 때 쓴다.

- (1) 가. 어제 비가 왔다.
나. 지난번에 누구를 만났니?
다. 어제는 기분이 나빴어요.

‘-았’은 현재 진행형의 행위가 아니라 끝난 행위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가. 영희는 빨간 옷을 입었어요.
나. 은행문이 벌써 닫혔어요.
다. 벌써 꽃이 다 피었다.
라. 너도 이제 늙었구나.
마. 음식이 모두 상했다.

‘옷을 입었다’는 옷을 입는 행위는 과거에 한 행위이나 지금 현재까지 행위를 한 결과나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피다’, ‘늙다’, ‘상하다’와 같은 동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보다는 그 행위가 끝난 후의 결과나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때가 많으므로 ‘피었다’, ‘늙었다’, ‘상했다’로 많이 쓰인다.

‘-았’이 이미 끝난 일임을 나타낼 때는 ‘입고 있다’, ‘닫혀 있다’, ‘피어 있다’처럼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고 있다’, ‘-어 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았’이 이미 끝난 일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미래의 상태를 이미 끝난 일로 생각할 만큼 그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확신하고 있을 때도 쓸 수 있다.



- (3) 가. 넌 이제 죽었다.
나. 내일 여행은 다 갔다.

‘이제 죽었다’는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잘못을 많이 한 상태라고 확신할 때 쓰며, ‘여행은 다 갔다’는 현재의 상태가 여행을 갈 수 없을 만큼 나쁨을 확신할 때 쓴다.



생각해봅시다!

- ‘-더-’ 는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여 쓰는 말인데 여기에 ‘-었-’ 을 결합하여 쓸 수 있나요?

‘-더-’는 ‘-었-’과 함께 쓸 수 있다.

- (1) 집에 갔을 때 식구들이 밥을 먹던데요.
(2) 집에 갔을 때 식구들이 밥을 다 먹었던데요.
(3) 제가 갔을 때는 문이 닫혔던데요/닫혀 있던데요.

(1)은 집에 갔을 때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즉, 그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았을 때 그 상황을 회상하여 말하는 의미이다. 반면에 (2)는 밥을 먹고 있는 행위가 끝나서 그 결과만을 보았을 때 쓰는 표현이다. 즉, ‘-었-’은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나타내기보다는 이미 끝난 일임을 나타낸다. (3)의 경우는 ‘-었-’이 이미 끝난 행위가 그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과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닫혀 있다’처럼 ‘-어 있다’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

11 ‘-느리고’와 ‘-어서’는 바꿔 쓸 수 있나요?

‘-어서’는 앞의 행위나 상태가 뒤의 행위나 상태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고 ‘-느리고’는 앞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뒤의 상태가 되거나 **뒤의 행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바꿔 쓸 수 없다.**

- (1) 가. 그는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나. 그는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봐서 정신이 없었다.

(1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에 정신이 없었다는 뜻이며, (1나)는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정신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의 행위를 하는 동안에 뒤의 상태가 될 때는 ‘-느라고’가 쓰인 (2가)의 문장이 좋으며, 앞의 일이 뒤의 행위나 상태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서’가 쓰인 (3가), (4가)의 문장이 자연스럽다.

- (2) 가.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푸느라고 진땀을 흘렸다.
나.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풀어서 진땀을 흘렸다.(×)

- (3) 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다.(○)
나. 너무 많이 먹느라고 배가 아프다.(×)

- (4) 가. 비가 와서 땅이 질다(○)
나. 비가 오느라고 땅이 질다.(×)

12 계기 ■ 나타내는 ‘-고’와 ‘-아서’는 언제 구별해서 쓰나요?

앞의 행위를 한 후에 뒤의 행위를 할 때 ‘-고’와 ‘-아서’를 쓰는데, ‘-아서’는 ‘가다, 오다, 앉다, 눕다, 내리다’ 등의 동사 뒤에 쓰이고, 앞의 행위와 뒤의 행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쓰인다. ‘-고’는 앞의 행위와 뒤의 행위가 연관성 없이 시간적인 선후관계만을 나타낸다.

- (1) 가.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
나. 학교에 가고 공부했어요.(×)
(2) 가.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타세요.(×)
나. 버스에서 내리고 지하철로 갈아타세요.(×)
(3) 가. 친구와 만나고 영화를 보았어요.
나. 친구와 만나서 영화를 보았어요.
(4) 가. 과일을 먼저 씻고 음식 준비를 합니다.
나. 과일을 씻어서 접시에 예쁘게 담았어요.

(1)의 예문에서 보듯이 학교에 간 후에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뜻일 때는 ‘-고’를 쓰지 못한다. ‘내리다’가 쓰인 (2)의 예문 역시 버스에서 내린 후에 지하철로 갈아탄다는 뜻일 때는 ‘-고’를 쓰



지 못한다.

(3가)는 친구와 만난 후에 그 친구와 관계없이 영화를 보았다는 의미이고, (3나)는 친구와 만난 후에 그 친구와 영화를 보았다는 의미로 앞의 행위와 뒤의 행위가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앞의 행위와 뒤의 행위가 서로 연관성이 없는 (4가)에서는 ‘-고’를 쓰며 앞에 씻은 과일을 가지고 뒤의 행위를 하게 되는 (4나)에서는 ‘-아서’를 쓴다.

13 ‘-으러’와 ‘-으려고’는 바꿔 쓸 수 있나요?

‘-러’와 ‘-려고’는 앞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뒤의 행위를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러’는 주로 ‘가다, 오다’ 등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같이 쓰고, ‘-려고’는 그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가다, 오다’ 등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같이 쓸 때는 바꿔 쓸 수 있다.

- (1) 가. 한국말을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
나.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국에 왔어요.
- (2) 가.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을 한다.(○)
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러 운동을 한다.(×)

뒤의 문장에 ‘가다’가 쓰인 (1)에서는 ‘-러’와 ‘-려고’를 모두 쓸 수 있으나 ‘운동을 하다’가 쓰인 (2)에서는 ‘-려고’만 쓸 수 있다.

14 ‘-더니’와 ‘-있더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더니’는 앞의 상태가 뒤의 상태로 변화하거나 앞의 행동으로 인해 뒤의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을 실제로 보거나 느꼈을 때 쓴다. 보통 앞문장과 뒤의 문장의 주어가 같거나 화제가 동일해야 하며, 말하는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주어로 와야 하므로 주로 다른 사람이나 일이 주어로 쓰인다.

‘-있더니’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나 그 행위의 결과를 말할 때 쓴다. 또한 내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었을 때 쓰므로 앞의 주어는 언제나 ‘나’이다.

(1) 가. 지난주까지 덩더니 오늘은 제법 시원하네요

나. 영희가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취직 시험에 합격했어요.

다. 김 선생님이 결혼하시더니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라. 친구는 나를 보더니 활짝 웃었다.

(2) 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좋아졌어요.

나. (내가)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더니 할인판매를 하더군요.

다. (내가) 빨간 바지를 샀더니 동생도 샀어요.

(1가)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주와 오늘의 날씨가 다를 것을 나타내고, (1나)는 영희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취직 시험에 합격했음을, (1다)는 김 선생님이 결혼한 후에 성격의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1라)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친구의 행동을 내가 보고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2가)는 내 행위의 결과로 성적이 좋아졌음을, (1나)는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을, (1다)는 내 행위가 동생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비교

	앞 문장	뒤 문장
-더니	다른 사람의 행위	상태의 변화, 행위의 결과, 그 후의 행위
-었더니	말하는 사람의 행위	행위의 결과, 행위 후에 알게 된 사실

15 '-으면'과 '-어야'는 언제 쓰나요?

‘-으면’은 앞의 상태가 행위가 뒤의 행위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고, ‘-어야’는 앞의 행동이나 상태가 뒤의 행동이나 상태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나타낸다.

(1) 가. 여자여야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나. 여자이면 누구나 아기를 낳을 수 있어.



(1가)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1나)는 여자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어야’가 필수적인 조건을 나타내므로 아직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막는 상황에서 쓸 수 있다.

(2) 가 : (16살인 아이가) 저도 술 한 잔 주세요

나 : 안 돼. 20살이 넘어야 술을 마실 수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

(3) 가: 미국에서는 몇 살에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나 : 누구든지 20살이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2)에서처럼 16살인 아이는 아직 술을 마실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술을 마시겠다고 할 때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마실 수 있음을 말할 때 ‘-어야’를 쓴다. (3)처럼 일반적인 조건을 나타낼 때는 ‘-으면’을 쓴다.

16 ‘-길래’와 ‘-어서’는 언제 쓰나요?

‘-어서’는 앞의 상태나 행위가 뒤의 상태나 행위의 원인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길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 또는 물건의 상태가 원인이 되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음을 나타낸다.

(1) 가: 꽃이 예뻐서 한 송이 샀어요.

나: 꽃이 예쁘길래 한 송이 샀어요.

(2) 가: 꽃이 예뻐서 친구가 한 송이 샀어요.(○)

나: 꽃이 예쁘길래 친구가 한 송이 샀어요.(×)

꽃이 예쁜 것이 내가 꽃을 사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나타낼 때는 (1가~나)처럼 ‘-어서’와 ‘-길래’를 모두 쓸 수 있다. 그러나 꽃이 예쁜 것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될 때는 (2가)처럼 ‘-어서’만을 쓸 수 있다.

(3) 가: 친구가 대학에 가서 나도 따라 갔어요.(○)

나: 친구가 대학에 가길래 나도 따라 갔어요.(○)

- (4) 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요.(○)
 나. 너무 많이 먹었길래 배가 아파요.(×)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 하게 되었을 때는 (3가~나)처럼 ‘-어서’와 ‘-길래’를 모두 쓸 수 있으나 ‘-길래’를 더 많이 쓴다. 그런데 나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말할 때는 (4가)처럼 ‘-어서’만을 쓸 수 있다.



생각해봅시다!

◎ ‘-기에’와 ‘-길래’는 같은 것인가요?

‘-길래’는 사전에 ‘-기에’의 잘못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가. *나는 최선을 다했길래 후회는 하지 않는다. (×)
 나. 나는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 (○)
 (2) 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길래 결혼까지 할 수 있었을 거야. (×)
 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기에 결혼까지 할 수 있었을 거야. (○)

(1가)처럼 ‘-길래’는 나의 행동의 결과가 뒤의 행위의 원인이 될 때는 어색한 표현이 되나 (1나)에서처럼 ‘-기에’는 나의 행동의 결과가 뒤의 행동의 원인이 될 때도 쓸 수 있다. 또한 (2나)처럼 앞뒤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 ‘-기에’를 쓸 수 있으나 ‘-길래’를 쓰면 어색하다. 즉, ‘-길래’와 ‘-기에’는 서로 다른 문법이라고 볼 수 있다.

17 ‘-네요’와 ‘-군요’는 바꿔 쓸 수 있나요?

‘-네요’와 ‘-군요’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감탄하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쓰는데, ‘-군요’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쓸 수 있다.

- (1) 가. 꽃이 참 예쁘군요.
 나. 꽃이 참 예쁘네요.



(2) 가. 그리고 보니 새 옷을 입었군요.

나. 그리고 새 옷을 입었네요.

(3) 가. 마이클 씨가 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나. 마이클 씨가 어제 갔군요. 다음 주쯤 갈 줄 알았는데.(○)

다. 마이클 씨가 어제 갔네요. 다음 주쯤 갈 줄 알았는데. (×)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여 말할 때는 (1가~나)처럼 ‘-군요’와 ‘-네요’를 모두 쓸 수 있다. (2가~나)처럼 현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군요’와 ‘-네요’를 모두 쓸 수 있다. 그러나 (3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군요’가 쓰인 (3나)만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군요’는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전제가 없이 쓸 수 있는데, ‘-네요’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만 쓴다.

(4) 가. 네가 자꾸 조는 것을 보니 어제 늦게 잤네.(×)

나. 네가 자꾸 조는 것을 보니 어제 늦게 잤구나.(○)

(4가)가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는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네’는 발화 당시에 알게 된 사실만을 나타낸다.

(6) 가. 어제 영화를 보았는데 참 재미있더군요.(○)

나. 어제 영화를 보았는데 참 재미있더네요.(×)

어제 보고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더’와 함께 ‘-더군요’를 쓸 수 있으나 ‘-네’는 쓰지 못한다.

18 ‘-어 버렸다’와 ‘-고 말았다’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 버리다’는 어떤 행위가 끝났음을 그리고 그 끝난 행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부담을 덜었거나 그 행위가 끝나서 아쉽거나 할 때 쓴다. ‘-고 말다’는 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쓴다.

- (1) 가. 동생이 하도 졸라서 아끼던 옷을 쥐 버렸다.
 나. 며칠 전부터 해야 했던 숙제를 조금 전에 끝내 버렸다.
 다.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어 버렸다.
 라. 친구가 말없이 떠나 버렸다.

- (2) 가. 밤 열 시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말았다.
 나. 사랑하던 강아지가 어젯밤에 죽고 말았다.
 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다.

(1가~다)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을 해결함으로써 그 일을 끝낸 다음의 후련함을 나타내고 (1라)에서는 친구가 말없이 떠나버려서 아쉬움을 나타낸다. (2)에서는 먹지 않아야 했는데, 또는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먹었음을, 죽으면 안 되는 강아지가 죽었음을, 헤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헤어졌음을 나타낸다.



생각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어휘를 어떻게 연습시키면 좋을까요?

- ‘나도 모르게 사실을 말해 버렸다.’ 나도 모르게 사실을 말하고 말았다. ‘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 버리다’는 부담을 덜었음을 나타내거나 아쉬움을 나타내지만 ‘나도 모르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등과 같이 쓰일 때는 의도와 다르게 그 일을 함으로써 후회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의미는 ‘-고 말다’에서도 볼 수 있다. ‘-고 말다’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했음을 나타내므로 후회스러운 의미를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사실을 말해 버렸다’와 ‘나도 모르게 사실을 말하고 말았다’는 후회스러운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그리 큰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